

06

‘한동안 유자생각’은
항상 유자생각 중**고흥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한동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탐스런 노란빛 유자가 탕글탱글 익어가는 고흥군 풍양면 한동리 일원. 유자 주생산지답게 유자나무에 둘러싸인 유자공원 산책로를 따라 관광객들의 체험관광이 이어진다. 유자나무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수확철이 되면 유자 따기 체험도 한다. 배꼽이 튀어나온 것, 못 생기고 울퉁불퉁하고 껍질이 두꺼운 것, 알이 굵은 것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좋은 유자다. 유자는 연평균 기온이 13~15℃를 유지하되 평균 일교차가 15℃내외, 최저기온이 영하 9℃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곳에서만 재배할 수 있다. 특히 겨울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너무 추우면 꽃눈이 형성되지 않아 유자생산이 어렵다. 일조량은 연간 2400시간 이상, 연평균 강수량은 1500mm이상이어야 한다. 게다가 바람도 알맞게 불어야 한다. 적당한 바람은 유자나무의 증산작용을 촉진하고 광합성을 왕성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기후조건을 갖춘 고흥, 완도, 남해, 거제, 통영, 고성 등 남해안 지역은 유자재배의 북쪽 한계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고흥군은 우리나라 전체 유자 생산량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유자 재배능가가 많다. 특히 이 곳 풍양면 한동권역은 고흥 내에서도 유자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으로 고흥 유자 생산량의 25%를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한동권역 곳곳에 유자밭을 비롯하여 가공업체, 유자공원, 유자특산물전시판매장을 보유하고 있어 생산-가공-판매의 각 과정을 모두 운영하고 있다. 이 한동권역이 ‘한동안 유자생각’에 그치지 않고 1년 365일 유자생각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유자향 그득한 고흥군 한동리, 보천리, 봉양리가 있는 한동안유자생각마을로 가 보자.



한동안유자생각마을을 소개합니다

한동안유자생각마을은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의 한동리, 보천리, 봉양리 3개리 12개 마을이 모여 만들어진 법인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다. 꽤 오랫동안이라는 뜻을 지닌 ‘한동안’이란 단어와 ‘유자생각’을 조합하여 만든 ‘한동안유자생각’은 한동이라는 지역적 명칭을 자연스럽게 알리고 한동에서 생산되는 맛있는 유자를 잊지 않고 오랫동안 생각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현재 각 마을 이장단과 대표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20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부녀회원들을 중심으로 매달 2회 이상 안건을 제시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07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시작된 이래 마을 곳곳에 기초생활, 소득기반, 경관시설 및 문화복지 시설이 계획대로 하나씩 순조롭게 조성되어 가고 있다. 한동리는 유자와 유자밭 경관을 부각하여 관광자원과 연결, 도시민 유치 및 농촌관광 활성화에 주력했다. 이를



위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유자골 체험마당을 증축하였고 산책로를 정비하여 마을의 경관과 생태자원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을공용주차장을 확보해 주민의 차량 주차는 물론 권역 축제나 마을 행사시 주민 공동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을회관 인근의 공용부지에는 쉼터를 겸한 소공원을 조성하여 주민과 방문객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농촌의 정취와 어울리게 우물복원 작업도 이루어졌다.

보천리는 마을 내 미비한 정주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농촌의 전통생활자원을 복원해 농촌다움을 회복하여 주민복지와 농촌관광을 연계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농촌의 자연미를 회복하고 도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통 담장을 복원하였다. 한동리와 마찬가지로 인근의 공용부지에 쉼터를 겸한 소공원을 조성하였으며 우물복원도 완료하였다. 또 보호수를 정비하여 주민 휴식공간의 기능을 겸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성하였다. 봉양리에는 정주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농산물의 생산, 저장, 가공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이 들어섰다. 다목적창고를 만들어 수확 농산물의 보관 및 저장, 농기계 보관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예선별장 조성을 통해 배추생산 농가를 비롯 지역민들이 농산물을 선별하고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 저온저장고를 만들어 유자, 마늘 등의 저장기간을 높여 농산물 가격하락 및 파도에 대비하고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판매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였다.

기반시설 조성은 완료했으나...

5년에 걸쳐 총 6,388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국비 70%, 지방비 30%의 비율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4,791백만원

원예선별장



유자골 체험 마당





담장



산책로



소공원

을 집행하여 75%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다. 실 공사진척율은 85%로 2011년 12월까지 전 사업장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반시설 구축 등 하드웨어 사업은 고흥군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교육과 컨설팅, 축제지원, 정보화 구축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은 농어촌정비사업 설계와 유지관리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중에 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유자공원과 유자전시판매장이 이미 조성되어 있었다.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유자공원에는 수 만명이 다녀갈 정도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1단계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위한 시설, 그리고 유자생산을 위한 기초시설 등 기반시설 마련을 추진하였다. 현재까지 산책로, 소공원, 담장 정비, 우물 복원, 주차장, 원예선별장, 저온저장고 등이 무리없이 완비되었으며 유자골체험마당은 현재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

한동권역의 유자관련 커뮤니티센터 역할을 담당하게 될 유자골체험마당의 설립에는 다소 우여곡절이 있었다. 계획 당시 부지는 한동리에 있었으나 권역의 중앙부지도 아닐 뿐더러 유자전시판매장과도 거리가 멀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추진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당초 부지보다 나은 부지를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각 마을의 회의 결과 봉양마을에서 자발적으로 마을 부지를 희사하기로 결정하여 지금 위치에 유자골체험마당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원래 선정되었던 부지는 땅 소유주가 확답을 주지 않아 1단계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2단계로 미뤄둘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셈이다. 권역 중심에 유자골체험마당이 들어서게 되어 모두가 환영했으나 그것도 잠시 공사 중에 업체가 부도를 맞았다. 현재는 보증시공업체에서 예정공정에 의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여곡절이 있었

던 만큼 탄탄히 조성될 커뮤니티센터를 생각하며 고흥군과 한동권역은 다양한 활용을 위해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처럼 기반시설관련 사업은 큰 무리없이 진행되었으나 문제는 유자생산을 통한 소득사업 부문이었다. 한동권역에서는 고흥유자의 70%를 소비하는 한성푸드와 두원농협에 생과 상태로 납품하거나 유자청 형태로 판매하는 한정된 판매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계획적인 판매로 고수익을 창출하여 주민들의 소득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고흥군과 추진위원회가 치열하게 고민하는 부분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민의 결과들이 하나하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주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까지

지금은 한동안유자생각 법인에 출자한 주민의 수가 50명이 넘는 열정적인 모습의 한동권역이지만 처음부터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있

| 한동권역 단계/부문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1단계			2단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합 계	(172) 6,388	(0) 376	(34) 1,225	(138) 2,144	(0) 1,650	(0) 993
마을역량 강화	649	56	142	182	138	131
문화 복지	2,216	—	—	556	939	721
기초 생활	522	—	477	45	—	—
소득 기반	(172) 689	—	(34) 135	(138) 554	—	—
경관 시설	1,074	81	259	472	262	—
제경비 외	1,238	239	212	335	311	141

※ () 주민자부담



유자사진 콘테스트, 유자음식 경연대회

있던 것은 아니다. 처음 사업이 시작될 당시에는 “다 늙어 사업에 참여해서 뭐하겠소.”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대다수였다. 주민들이 대부분 노령층인지라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을 쉽게 버리지 않으려 했고 사업소득에 대한 인식도 거의 없었다. 소득사업은 주민들의 자부감이 필요할 뿐 아니라 다수의 참여없이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주민들의 인식전환이 시급했다.

처음에는 ‘미생물가공공장 건립’이라는 큰 목표와 포부로 한동권역 전체가 친환경 유자를 생산하며 소득을 창출하는 모습을 그리며 시작된 사업이었다. 가공을 거치면 유자를 일시에 출하해서 헐값에 넘기는 일도 막을 수 있고 유자를 꾸준히 판매해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주민들의 호응도도 높지 않은 상태인데다 친환경 유자를 바라보는 현 유통업체들의 반응도 좋지 않았다. 수익이 발생하리라는 기대가 없어지면서 사업에 참여하려던 주민들까지 낙담할 수밖에 없었다. 소득사업을 미뤄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간은 자꾸 흘러만 갔다.

그러던 중 고흥군과 추진위원회는 수차례의 회의를 거친 끝에 소득사업을 변경하여 유자를 반가공하는 시설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고흥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컨설팅업체에서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발품을 팔며 일일이 주민들을 만나고 다니니 서서히 인식변화가 이루어졌다. 주민들을 설득할 때 제품의 샘플을 만들어 보여주면 훨씬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노력 끝에 1단계가 마무리 될 무렵에는 ‘한동안유자생각법인’에 대부분의 주민이 참여하는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소득사업의 추진이 사업초기부터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현재는 권역 전체가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내기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이고 있다.

온·오프라인 유자로 흥하는 마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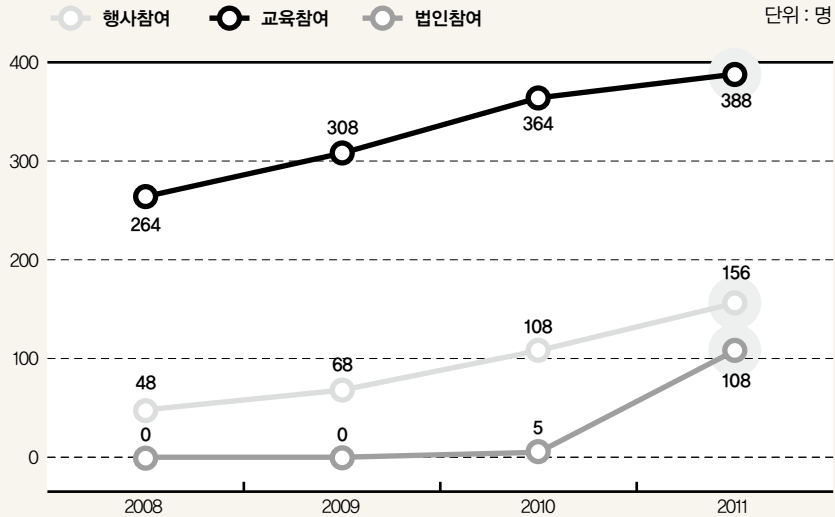
현재는 유자가공식품인 유자티백과 유자드레싱이 개발 완료되었으며 유자라떼 레시피를 개발하여 커피전문점 HOLLYS COFFEE와 납품계약을 진행 중이다. 또 일본의 한 기업과 유자주스 수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유자즙을 수입하겠다는 사람도 있어 접촉 중이다. (주)아리온 코스메틱사와는 유자를 활용한 기능성 유자비누 생산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유자비누는 피부 가려움증, 건조증, 알레르기 피부에 효과가 입증된 ‘아리온’ 물질과 유자추출물을 혼합하여 만들어진다. 이번 협약으로 고기능성 유자비누를 월 5만개이상 생산, 연간 2억 4,000만원 이상의 주민소득을 기대하고 있다.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 홍보마케팅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한동권역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해 개최된 유자사진 콘테스트에는 전국의 사진작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유자사진 작품이 나왔으며, 유자음식 경연대회는 전국 30팀이 참여하여 호황을 이루었다. 고흥군에서는 유자음식 경연대회 수상작품을 매뉴얼화하여 관내 모범 음식점과 전문식당에 보급하여 유자소비 촉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홍보 마케팅의 결과 많은 소비자들이 홈페이지(www.hdyuja.co.kr)를 방문하여 유자생과와 유자청을 구입하는 등 예상치 못했던 성과도 있었다. 또한 인터넷 주요 포털사이트 파워 블로거들이 한동권역 유자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게재하여 4만 명 이상의 네티즌에게 공개되고 있다. ‘한동안유자생각’은 다수의 회원들과 꾸준히 소통함으로써 충성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온라인 홍보활동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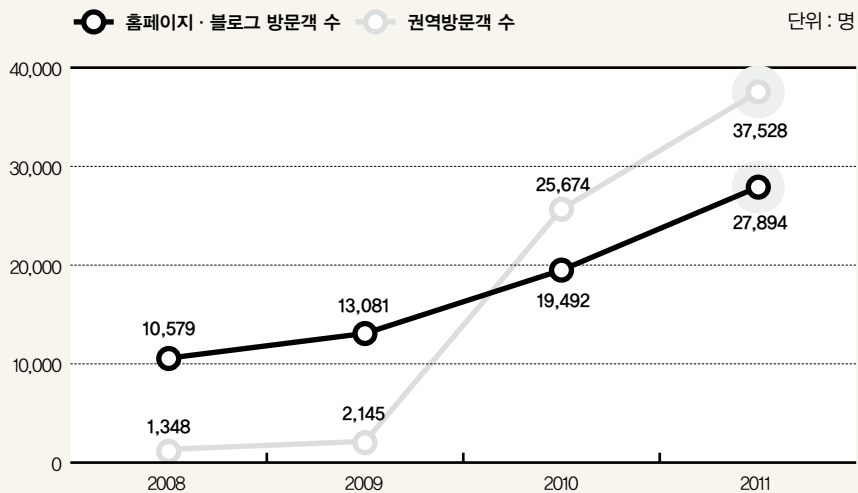


홈페이지, 블로그

| 주민 참여 수 |



| 외부 방문객 수 |



유자만큼 건강하고 탄탄한 미래를 꿈꾸며

타지역에 비해 한동권역은 우수한 유자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하시기가 한정되어 있고 보관이 용이하지 않아 계획적인 판매와 고수익 창출이 어려웠었다. 고흥군과 추진위원회는 한동권역 유자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제대로 활용하자는 목표아래 단순히 정형화된 유자가공식품에서 벗어나 소비자 성향과 트렌드를 조사 분석하는 작업부터 철저히 했다. 그 결과 최근 농식품의 소비구조가 신선농산물뿐 아니라 가공식품, 외식소비로도 활발하기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발전적인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도 생유자 뿐만 아니라 청유자, 유자잎 등을 개발하여 연중 수익창출이 가능한 형태로 발전시켜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창출할 계획이다.

한편 한동안유자생각마을 전체가 저농약 친환경 인증을 받았으며 유기농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앞으로 가공공장이 설립되어 권역의 이름으로 가공되는 유자는 법인에서 엄선한 친환경 유자로 가공을 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의 수익보다 농산물의 안정성을 지키고 미래를 내다보자는 것이 한동안유자생각마을 모든 주민의 생각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유자를 가공할 수 있고 유자를 활용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고 본다. 주민들은 이 사업을 계기로 소득사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터득하였고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 사업의 기반을 잘 닦아 젊은 인재들이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유자하면 고흥, 고흥하면 한동안유자생각!”을 만들어가는 것이 모두의 소망이자 비전이다.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한동안유자생각’이 힘껏 발사대를 출발했다.



유자비누



머그컵



방재과 정 동 과장(우), 김선태 담당자(좌)